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뉴욕주 제조 활동, 1년 만에 처음으로 확대
- WSJ: '미 금리가 너무 높다. 0.5% 인하해야'
- Bloomberg: 연준, 연착륙의 미국 경제를 준비한다

[미국 금융]

- WSJ: 미국인들 자동차 용자 등 청구서 갚기 힘들어
- Bloomberg: 국채 트레이더들, "0.5% 금리 가능성 더 높아"
- Bloomberg: "월가 은행원들 근무 시간 길어도 상관 안 해"

[미국 대선]

- Bloomberg: 투자자들, "해리스가 당선되면 국채에 좋지만 주식엔 나빠"

[미국 생활]

- WSJ: 미 백만장자, 주택 사는 대신 임대한다

[주택]

- CNNBusiness: 금리 인하 다가오면서 주택 구입을 위한 가이드

[원자재]

- Bloomberg: 이번 주 글로벌 원자재 5개 주요 차트

[전기차]

- Bloomberg: '전기차 경쟁, 디트로이트는 중국과 손잡아야'
- Bloomberg: 중국 CATL, 전기 트럭 시장 노린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Business: 내년 대기업 기본급 인상률 4% 미만으로 예상
- Bloomberg: 치폴레의 새로운 로봇 직원 음식 손질한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New York Manufacturing Expands for First Time in Nearly a Year

뉴욕주 제조 활동, 1년 만에 처음으로 확대

- 뉴욕주 제조 활동이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확대됐다. 주문과 출하가 늘었기 때문이다.
- 뉴욕 연준의 9월 일반 여건 지수는 16.2 포인트 늘어난 11.5를 기록해 블룸버그의 전문가 예상치를 넘어섰다.
- 신규 주문은 17포인트 상승한 9.4로 작년 4월 이래 최고치를 보였으며 출하지수도 1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 반면에 고용 지수는 11개월 연속해서 위축되어 근무 시간 지수는 완만하게 늘었다.
- 한편 미국 전역의 제조 지수는 지난 2022년 10월 이래 한 달의 제외하고 대부분 위축 상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높은 비용, 비즈니스 투자 위축, 고르지 못한 소비자 지출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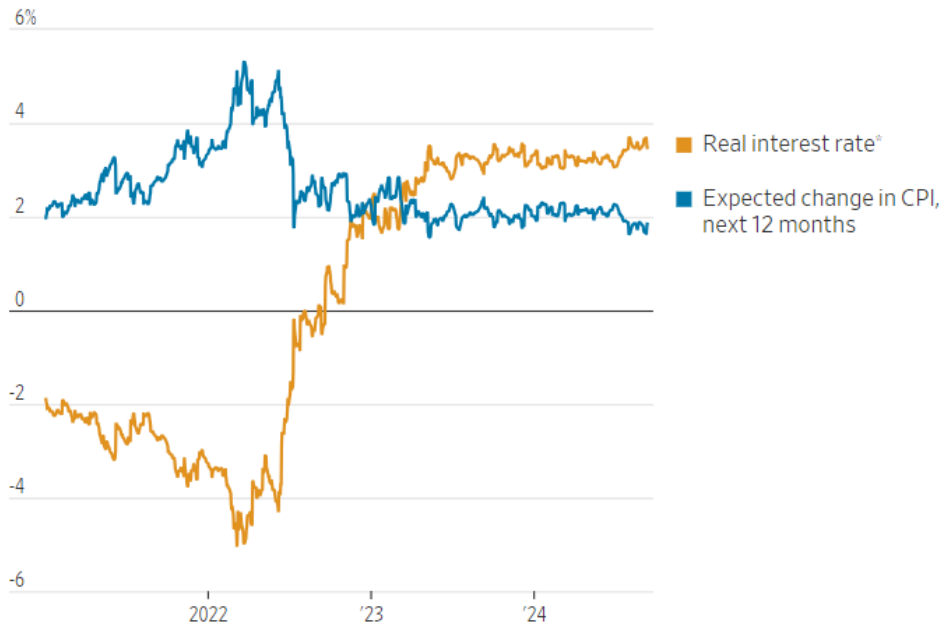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WSJ: Interest Rates Are Too High. The Fed Should Cut by a Half Point.

‘미 금리가 너무 높다. 0.5% 인하해야’

- 연준의 이번 주 금리 결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0.5% 포인트 인하해야 한다.
- 현재 단기 금리가 5.25%~5.5%인데 지난 2001년 이래 가장 높다. 일부 지표들은 연준 목표인 2% 목표 범위내에 있다. 그런데 인플레이의 대부분 지수는 3% 미만이고 노동 시장도 둔화되고 있다. 경기 침체가 될 근거들도 별로 없다. 인플레이는 계속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오일 가격도 7월초 배럴당 83달러에서 지난 금요일 7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 금리 인하 0.5% 인하보다 0.25% 인하는 더 리스크가 있다. 세계 경제, 특히 중국과 유럽 경기 둔화 때문에 오일과 구리 등 광물 가격이 떨어졌다. 그리고 자동차 용자와 크레딧 카드 연체 증가 현상은 고금리의 부담을 보여주고 있다.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도 시장은 금리가 낮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증거다.
- 이번에 0.25% 인하하고 인플레이 둔화 지표가 더 나온다면, 연준은 뒤처지게 된다.

Real interest rates, based on markets' expected inf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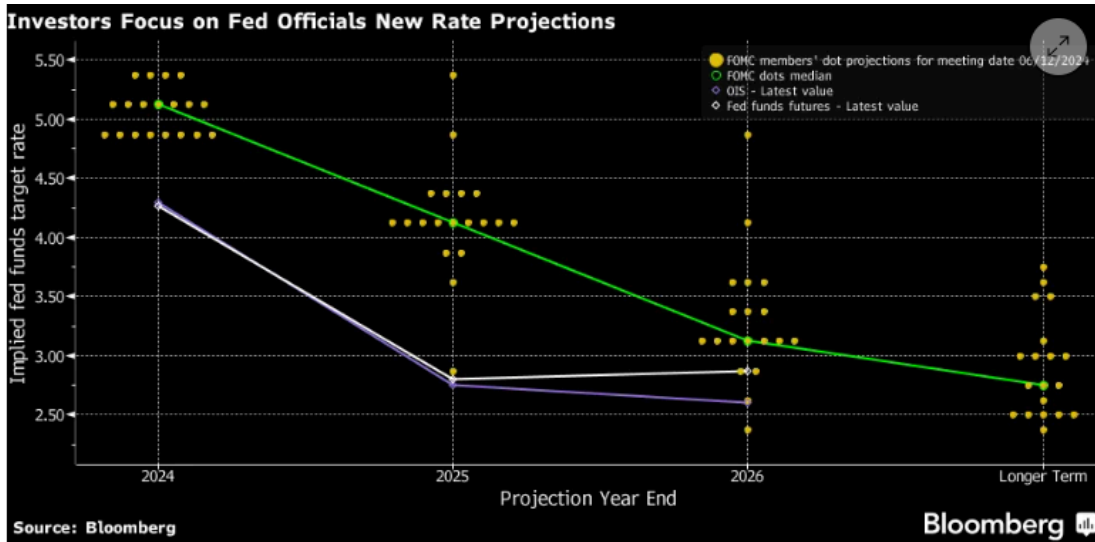
*Effective Federal funds rate minus expected CPI inflation next 12 months
 Source: Intercontinental Exchange (expected inflation), Federal Reserve (effective Federal funds rate), WSJ calculations

WSJ 기사

Bloomberg: Fed Ready to Unshackle US Economy With Soft Landing at Stake

연준, 연착륙의 미국 경제를 준비한다

- 이번 주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특히 JP 모건 등의 이코노미스트들은 0.5% 포인트 금리 인하 폭을 예측한다. 어쨌든 이번 금리 인하는 미국과 전체 글로벌 경제를 위해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Moody's Analytics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Mark Zandi는 말했다. 그는 경제가 진전되고 주식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그런데 투자자들의 관심은 18일 발표되는 연준의 결과와 관련해 향후 금리 경로를 예측하는 점도표에 관심이 가고 있다.
- 점도표가 연준 의원들이 향후 인플레이 경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냐는 입장을 보여주는데, 9월 이후 11월과 12월 그리고 내년도 인플레이와 특히 금리 인하 폭을 미리 저울질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Americans Are Falling Behind on Their Bills. Wall Street Is Alarmed.
 미국인들 자동차 융자 등 청구서 갚기 힘들어

- 식료품 가격 등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미국인들은 크레딧 카드의 높은 이자율을 감당해야 한다. 연준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5월 현재 크레딧 카드 평균 이자율은 21.51%로 지난 2019년 15%에서 크게 상승했다. 특히 크레딧 카드 연체율은 9.1%로 지난 10여년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뉴욕 연준의 8월 보고서는 밝혔다.
- 특히 경제 계층의 아래 절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소득층의 지출이 더욱 신중해지고 있는 것이다.

WSJ 기사

Bloomberg: Traders See Half-Point Fed Rate Cut Likelier Than Quarter-Point

국채 트레이더들, “0.5% 금리 가능성 더 높아”

국채 트레이더들 사이에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0.25%보다는 0.5%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관련 스왑 거래에 따르면 지난주보다 0.5% 인하 가능성이 50% 이상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2년물 국채 수익률은 지난 2년 이래 가장 낮았고, 달러 지수도 올해 1월 이래 가장 약세를 보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으로부터 분명한 가이드가 없는 상황이라 연준 내부에서도 인하 폭에 대해 컨센션스가 없을 수 있다며, 내일 화요일 발표하는 소

매 판매도 컨센서스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Dollar Index Hovering Near January Low



Bloomberg 기사

Bloomberg: Bankers Willing to Work Long Hours on Interesting Deals, Lazard CEO Says

“월가 은행원들 근무 시간 길어도 상관 안 해”

- 금융 자문사인 Lazard 의 CEO인 Peter Orszag는 “많은 젊은 월가 은행원들이 재미있는 업무에 관심이 많고 기꺼이 오랜 시간 일할 수 있어 한다.”라고 말했다.
- 재미없는 일에 적은 양의 시간으로 근무하기보다 재미있고 중요한 업무를 하려는 은행원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 일이라면 주당 80시간, 심지어 90시간도 참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러나 Peter Orszag는 직원들이 자신의 삶에서 다른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JP 모건 등은 일반적으로 매주 80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방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5월에 뱅크오브아메리카 직원이 과로사로 심장질환을 한 후에 젊은 은행원들의 업무량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으며, 은행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매주 1백시간의 근무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불만이 발생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대선]

Bloomberg: Investors See a Harris Win as Better for Bonds, Worse for Stocks

투자자들, “해리스가 당선되면 국채에 좋지만 주식엔 나빠”

- 블룸버그 터미널 구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오는 11월 대선에서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트럼프 당선보다 국채에는 좋지만, 증시에는 더 나쁠 것이라고 응답했다.
- 응답자의 50%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주식 투자를 늘릴 예정이라고 답한 반면, 28%만이 해리스가 당선되면 주식에 투자하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당선 시에는 거의 50%가량이 국채 투자를 줄이고 23%만이 해리스 당선 시 국채 투자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생활]

WSJ: These Millionaires Can Afford Their Dream Home. They're Renting Instead.

미 백만장자, 주택 사는 대신 임대한다

- 백만장자 임차인이 증가하고 있다. 미네소타 대학 IPUMS의 인구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소득 75만달러 이상 가구 중 임차 가구 비율은 10.8% 증가했다. 2000년대 중반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 2022년 연준 이사회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모기지 금리가 오르고 주택 공급이 줄었다. 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 임대하는 것이 더 저렴해진 것이다. 또한 돈 걱정 없는 백만장자의 임차인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미국인들의 주택 소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다.
- 우선 시장이 잠겨 있는 주택은 주식 같은 다른 투자 수단에 비해 매력적이지 않다. 보험료 같이 주택 소유에 드는 비용도 많이 올랐다. 유연성과 편의성 문제도 백만장자들에게 중요하다. 다양한 도시나 국가를 자유롭게 경험하는 데에는 임대가 더 매력적인 옵션이다.

WSJ 기사

[주택]

CNNBusiness: Here's what you should know about buying a home ahead of a likely interest rate cut

금리 인하 다가오면서 주택 구입을 위한 가이드

- 수요일 연준 이사회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침체된 미국 주택 시장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기지 금리는 2020년 이후 2배 올라 역사상 가장 비싼 주택 시장을 만들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예상되자 모기지 금리는 꾸준히 하락해 지난주 평균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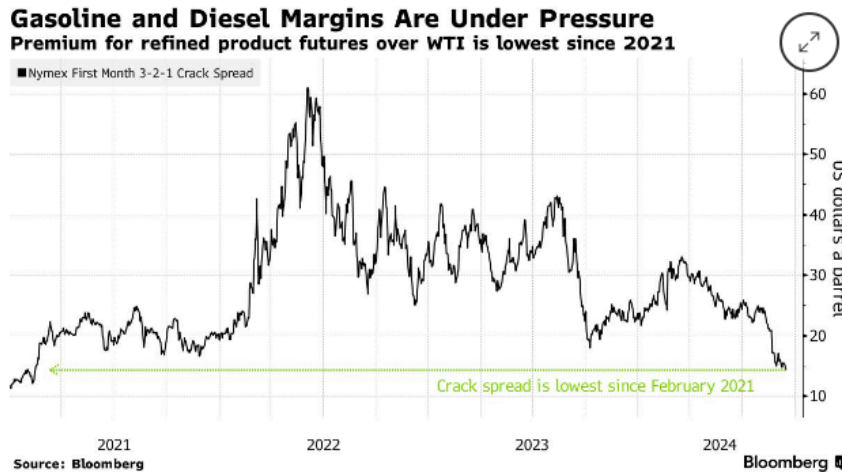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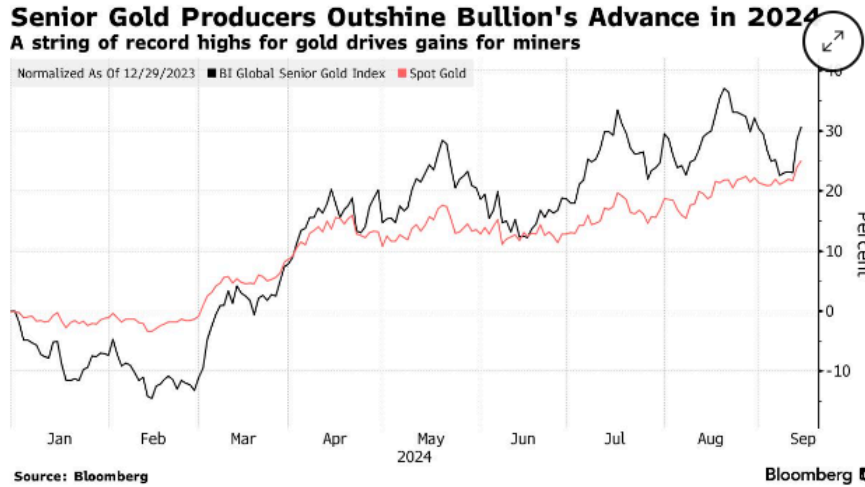
- 6.20%를 기록했다. 작년 최고치인 7.79%에서 많이 하락했으며, 2023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 고금리 상황에선 주택 소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았다. 금리가 인하되면 이러한 락인 효과(lock-in effect)가 깨지고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Redfin 수석 이코노미스트 Daryl Fairweather는 “금리가 내려갈수록 집을 팔고 다시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말했다.
 - 하지만 금리 인하 이후 주택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져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Bankrate 수석 재무 분석가 Greg McBride는 “신중해야 한다. 모기지 금리 인하로 인한 수요 급증 때문에 오히려 주택을 사기 힘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CNNBusiness 기사

[원자재]

Bloomberg: Five Key Charts to Watch in Global Commodities This Week 이번 주 글로벌 원자재 5개 주요 차트

- **금:** 금값이 올해 25% 상승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Newmont Corp., Barrick Gold Corp., Agnico Eagle Mines Ltd. 같은 주요 금 생산업체들의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지수는 올해 30% 상승했다.
- **석유:**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의 휘발유, 경유, 선물 프리미엄 가격은 지난해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중국 경제 침체로 석유 소비 증가율이 팬데믹 이후 가장 느리고, 미국도 수요가 적은 계절이 되면서 동부 해안 휘발유 재고가 2021년 이후 처음으로 5년 평균을 넘어섰다.
- **밀:** 덥고 건조한 날씨로 유럽 밀 수확량이 작년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전 세계 밀 수확량은 올해 7억9천7백만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밀 선물 가격은 올해 6.7% 하락했다.
- **원자력:** 펀드 매니저들이 원자력에 베팅하고 있다. Robeco Institutional Asset Management에 따르면 원자력은 기후 변화 대책 산업 중 3년 동안 가장 높은 성과를 거뒀다.
- **날씨:** EU 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에 따르면 6월부터 8월까지 지구 기온이 과거 평균보다 0.69°C 높아져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후 변화는 폭염, 가뭄, 산불, 폭풍, 홍수 등의 기상 현상을 유발해 원자재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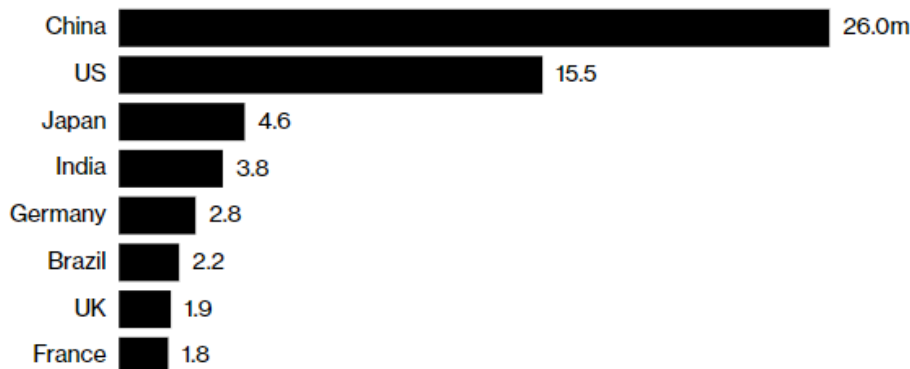
[전기차]

Bloomberg: To Catch Up in EVs, Detroit Needs to Invite China In '전기차 경쟁, 디트로이트는 중국과 손잡아야'

- 중국이 최대 자동차 시장이자 수출국, 미래 전기차 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성장했다. 미국이 자동차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오히려 이 적을 안으로 끌어들이야 한다.
- 자동차 컨설팅 회사 Duane Insights에 따르면 디트로이트는 미국 내수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이미 값싼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된 중국 제조업체들과 다르게 미국은 트럭과 SUV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차종들은 공기역학적 문제와 무거운 무게 때문에 전기차로 만들기 어렵다.
- 미국의 보호주의는 미국을 고립시킨다. 이대로 자동차 시장이 발목 잡히면 많은 부분을 중국에 내어줄 수 있다. 1980년대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가 떠오를 때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한 것처럼, 오히려 BYD 같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국 내에 공장을 짓게 해야 한다. 시장을 개방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흡수하면, 오히려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The Front-Runners

Passenger vehicle sales in 2023



Source: Government and industry association figures compiled by Bloomberg

Bloomberg 기사

Bloomberg: After EVs, China’s CATL Seeks to Dominate Electric Trucks 중국 CATL, 전기 트럭 시장 노린다

- 중국 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Co. Ltd(CATL) 회사는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로 성장했다. 이제는 전 세계 트럭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 CATL은 IAA 운송 행사에서 15년, 280만km 수명의 배터리를 장착한 대형 차량 및 선박용 신기술과 제품을 공개했다.
- 또한 CATL은 배터리 교환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유럽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술 및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Nio는 중국에 2,480개 이상의 충전소를 설치했지만, 노르웨이에는 20개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조차 크게 지연되고 있다.
- CATL은 우선 항만 지역에 배터리 교환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해운 대기업 CMA CGM과 친환경 항만 건설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산 배터리 사용이 더 저렴하지만, 현지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유럽에서 생산을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N Business: Average base pay raises at larger corporations projected to be just under 4% next year 내년 대기업 기본급 인상률 4% 미만으로 예상

- 대부분 미국 대기업은 내년 기본급이 평균 3.9%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평균 4.4% 인상으로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3년에 비하면 낮고, 올해 3.8% 인상보단 높은 수치다.
- Conference Board 수석 이코노미스트 Dana Peterson은 “상승은 2025년 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 공급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이 현재 인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완화도 실질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 Conference Board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본급 인상 예산은 39%가 승진, 32%가 외부 시장 압력에 따른 임금 경쟁력 유지, 29%가 주어진 역할에 대한 최저임금, 18%가 역할 책임 변화, 12%가 핵심 인력, 7%가 보상에 쓰일 예정이다.

CNNBusiness 기사

Bloomberg: Chipotle's New Guac Robots Can Peel Your Avocados in 26 Seconds

치폴레의 새로운 로봇 직원 음식 손질한다

- 치폴레가 로봇을 실제 서비스에 이용할 준비를 마쳤다. 로봇은 월요일에 실험실 테스트를 통과했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두 지점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 Autocado란 이름의 로봇은 평균 26초 만에 아보카도를 손질할 수 있다. Augmented Makeline이란 이름의 로봇은 자동으로 볼(bowl)과 샐러드를 제작한다.
- 치폴레는 “로봇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을 대신 해줘서 직원들이 다른 음식을 준비하거나 손님 응대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직원을 더 고용하지 않아도 더 많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미국 FOMC 금리 낮출 듯...국내 영향 주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한국 경제·금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17~18일(미국 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정책금리(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미국 정책금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8회 연속 동결됐지만, 7월 FOMC 당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기대 경로에 맞춰 둔화하는 가운데, 금리 인하가 9월 회의 때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